

油公 蔚山정유공장을 찾아



洪 性 裕

- 서울大 法大 졸업
- 1957년 한국일보사 현상 공모小説에 「비극은 없다」 當選
- 현 한국문인협회 이사
- 조선일보에 「인생극장」 연재중
- 1987년 한국문학평론가 협회상 受賞

울산 시내로 들어서는 관문 격인 신정동 로터리에 우뚝 솟은 탑이 있다. 바로 울산 공업센터 기념탑이다.

이 탑은 5·16혁명 후, 가난으로 얼룩져 온 4천년의 역사의恨을 풀고 민족의 숙원인 번영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국 근대화의 기치를 내걸고 이곳에 신공업도시를 건설하면서 세운 탑인 것으로 안다.

탑 하부의 톱니바퀴 모양의 탑대는 공업입국의 기초를 상징하고, 그 위의 5개의 탑신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력과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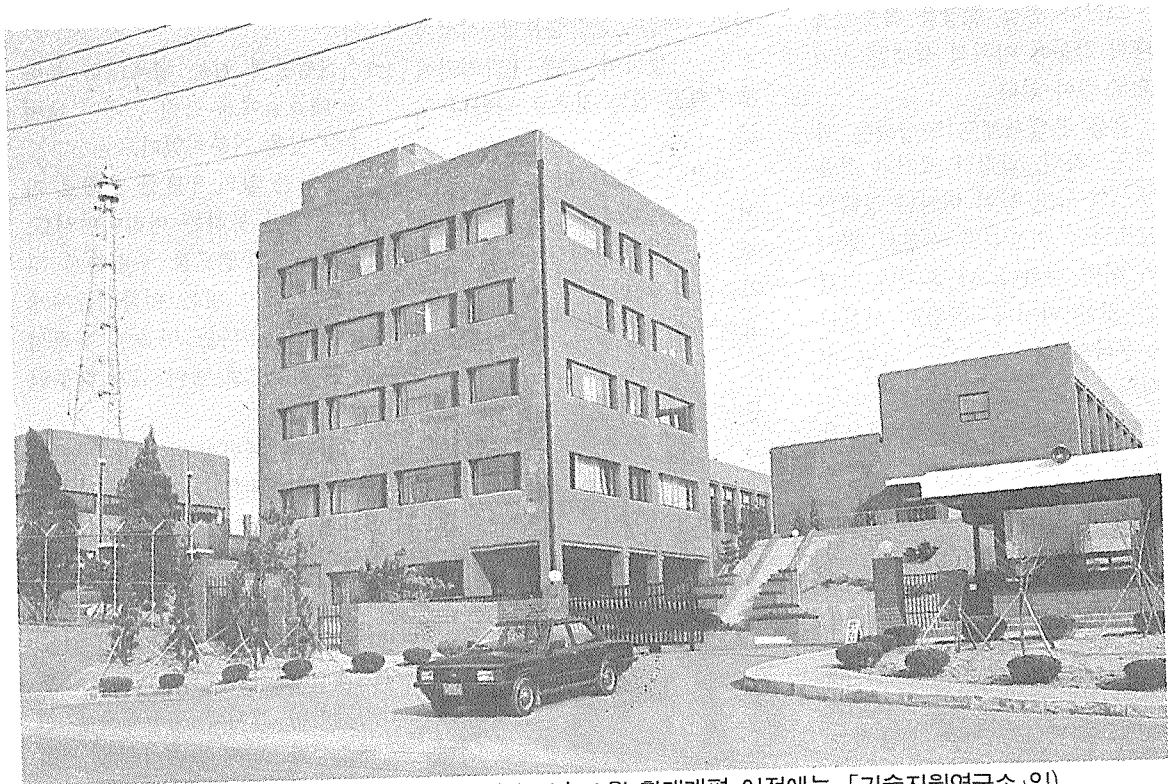
성공을 나타낸 것이며, 탑꼭대기의 지구의(地球儀)는 단결과 평화를 상징한다든가.

기념탑 앞뒤에는 망치를 높이 든 건설의 역군과 평화의 女神像이 서 있다.

이 기념탑이 상징하는 공업입국의 의지는 울산공업기지내 도처에 서 있는 대규모 工場群의 장한 모습에서 실감으로 느낄 수 있지만, 오늘의 경제적 부흥의 밑거름이 된 것은 바로 油公의 울산정유공장이 세워지고서부터 비롯된 것은 누구나가 수긍하는 일이라.

1962년 10월, 한국정부와 美國 殼牌社와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油公은 64년 4월, 日産 3만5천배럴의 정유공장을 갖추고 가동함으로써 조국 번영을 약속하는 고동이 맥박치기 시작했다. 새삼 강조할 것도 없이 석유야말로 모든 산업 발전의 핵심이고 원천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蔚山이 공업기지화되기 이전에도,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蔚山에 油公의 정유공장이 들어서기 이전까지만 해도, 蔚山은 풍요하지는 않았지만, 가난에 쪼



油公蔚山연구소(정유공장 옆에 신설 / 88년 5월 확대개편 이전에는 「기술지원연구소」임)

들어 있지도 않은 한가한 농·어촌이었다.

86년부터 향후 5년간 국제적 협약에 의해 捕鯨이 금지되어 지금은 흔적만 남아 쓸쓸해지기는 했지만, 고래잡이 포경선의 母港으로서의 長生浦가 더러 알려져 있었을 뿐, 국민들의 이렇다할 관심을 끌만한 고장이 되지 못했다.

그것이 油公의 정유공장 굴뚝에서 연기를 뿜기 시작한 이후, 대 공장기지화가 되면서 일약 도약 일로에 선 우리나라 산업의 심장부가 된 것이다.

이번 石油協會의 주선으로 바로 이蔚山정유공장을 다시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나로서는 자못 감개가 없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미 두차례에 걸친 산업시찰로蔚山공장을 둘러본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초의 방문은 그것이 油公의 발전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67년이든가 68년경인 것으로 짐작이 된다.

두번째 방문은 72년 이른바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남북 대표단이 남한과 북한을 서로 내왕했던 바로 그 무렵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美國의 걸프사가 철수를 하고, 鮮京이 경영권을 인수한 연후인 이제 세번째로 찾게 된 것이다.

석유업계에 대해서는 말할 것 없이 산업·경제부문에 전혀 문외한이면서도 세차례에 걸쳐 방문하게 되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의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그때그때 마다의 油公의 발전상을 비교해 보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참모습을 현장감있게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내가 최초로 油公蔚山공장을 방문한 67·8년경은 제1차 확장공사가 완공되어 하루 5만5천 배럴을 생산해 내던 무렵에 해당된다.

오늘의 시설이나 규모로 보면 대단할 것이 없는 소규모(?)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공장 현장을 목도했을 때의 감동은 아직껏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온통 은빛세계로 연상되는 파이프·라인, 엄청난 크기의 저유탱크의 규모 등이 어찌나 방대한 것으로 느껴졌던지 저절로 탄사가 튀어 나왔다. 나 혼자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동행한 시찰단 누구나의 똑같은 감동이었던 것이다.

이제껏 그만한 규모의 대공장을 본 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고작 釜山의 합판회사의 규모를 보고도 감탄을 아끼지 않았던 시절이었으니까.

보리고개도 제대로 넘기지 못해 굼주려야만 했던 것이 엇그제의 일인데, 우리나라에 정유공장이 다 서다니... 마치 분출하는 大油田을 발견한 것 같은 감격이 솔직한 당시의 느낌이었다.

석유가 정유의 공정을 거쳐, 휘발유를 위시하여 경유·중유·LPG·병커C유 등을 뽑아내고 있으며, 심지어 찌꺼기격인 아스팔트를 생산해 내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은 대충 들어 알고 있었다.

이제 정유공장이 가동됨으로써 무한한 경제발전의 가능성이 눈에 보이든 싶어 가슴 뻐뻐해지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다.

두번째로 油公을 방문한 남북 교류시절의 72년대를 역시 기록으로 살펴 보면 총 정제시설능력이 하루 17만5천배럴로 확장되고, 서울과 蔚山 사이에 장거리 송유관 부설공사가 완공되었으며, 나프타 분해센타가 완공되었는가

하면, 제3의 상압증류탑 시설이 신설·가동하여 하루 6만배럴씩 增産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어느 만큼 기여하고 있는 중요한 것인가, 역시 문외한인 나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한다.



油公유험유 선전포스터

그러나 당시 일행이었던 시찰단은 油公의 정유공장 뿐만 아니라, 현대조선소(이후 현대중공업으로 개칭된 것으로 안다)며, 포항의 제철공장도 아울러 견학했던 것이다.

油公이 엄청난 규모로 확장되었다는 데에도 경이의 눈을 치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큰 제철공장이 세워졌단 말인가,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대형선박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던 말인가.

사무치는 감동과 함께 새삼스러운 긍지를 느끼게 하는 것이었

다. 진행중에 있는 남북대화 북한측 대표들에게 한번 뽐내어 보여 주고 싶은 기분이었다.

지나간 일의 年度를 제대로 기억해 내지 못하는 머리이면서도, 두번째 방문연도를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북대표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직껏 강한 인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인 것이다.

마지막 세번째가 이번이 되지만, 실은 재작년 봄, 文人산업시찰단의 일원이 되어 蔚山을 찾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실례막급한 일로 蔚山정유공장 시찰만은 사보타지를 하여 빼먹었다.

개인 얘기가 되어 죄송하지만, 지금이나 그때나 조선일보에 연재소설과 함께 「별미여행」이란 컬럼을 주간연재로 집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長生浦의 별미집인 고래고기 전문집을 취재했었던 것이다.

물론 정유공장은 두차례에 걸쳐 이미 둘러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세번」이란 것을 좋아하지만, 나와 油公과의 인연은 정히 「삼세번」을 채워야만 했던 모양이다. 마침내로 기어히 삼세번을 채워 蔚山공장을 찾게 된 것이다.

나름대로 바쁜 나의 일정으로 하여 시간을 벌기 위해 울산으로 향해 떠난것은 일요일이었다.

공휴일에 공장으로 찾아들 수도 없는 일이어서, 도착 당일엔 蔚山의 친지·文友들과 어울려, 이미 개발해 놓은 별미집을 찾아

다니며, 여독을 달래는 술잔꺼나 기울였다. 서울서부터 동행한 석유협회의 金鍾七홍보과장은 왕년에 일자리도 함께 가진바 있는 스스럼없는 사이였던 것이다.

다음날 아침 공장을 찾았다.

홍보과의 許天植과장의 안내로 나를 특히 반갑게 맞아주는 것은 부공장장 梁瑛模이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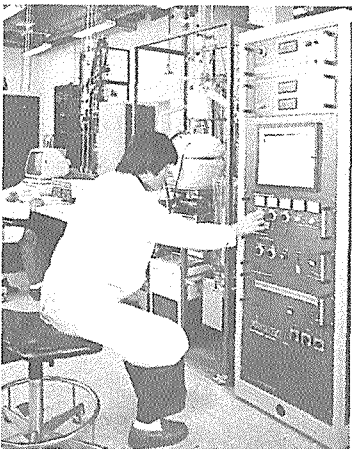
그는 나와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겹치기 후배인 것이다. 동창회 모임에서 자주 만난 일이 있는 구면 이상의 지기였던 것이다.

油公에 몸담고 있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미리 전갈도 하지 못한 것이 아쉽게 되었다. 미리 알았던들 일요일이 되었던 깊숙한 밤이 되었던 기어이 불러내어 구정을 돈독하게 풀 수 있었을 것을. 서로가 애석해 하는 것이었다.

어찌 되었거나 뜻밖의 객지에 서 후배동창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반가움 이상의 것이었다.

그의 안내로 대 정유시설을 살펴 본다.

국내 유일한 원유증류시험 장비



· 공장 부지의 총면적만도 2백 50만평에 이른다든가. 그 광활한 공장들을 꼼꼼히 살펴볼 수도 없는 일이었다. 승용차 위에서 그저 수박 겉핥기로 대충 둘러볼 밖에 없는 일이었다.

예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니, 그동안 꾸준한 확장공사를 계속해 온 油公은 1980년 美國걸프회사가 철수함에 따라 鮮京이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후에도 팔목할 발전을 거듭해 왔다.

77년 이후 하루 28만배럴의 원유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윤활유 하루 2천배럴, 그리이스는 연간 3천톤, 석유화학제품 연 15만5천톤(에틸렌 생산기준) BTX제조 연 70만톤 등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수치상에 나타난 기준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정유, 나프타 분해센타지역, 원유탱크 지역, 석유화학, 가스공장부지 지역을 대충 돌아보는 것만으로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한국 최초로 건설된 하루 3만 5천배럴의 원유처리능력을 가졌던 당시의 공장규모와 비길 바가 아니었다.

이제까지의 우리 국내의 석유 산업은 원유의 도입에서부터 판매가격에 이르기까지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져 왔고 통제되어 온 것으로 안다.

그러나 석유산업의 주변환경이 급변해가는 추세에 따라, 정부의 통제도 완화되거나 자율화될 전망이다 것으로 내다보는 의견이 높아가고 있는듯 하다.

경제의 國際化, 開放化에 부응하여 정부의 통제정책의 효율성에도 한계가 있으며,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민간기업의 책임있는 자율경영과 경영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고하고 있다는 추세 아래에서 예상할 수 있는 귀결일듯 싶다.

이에 발맞추어 油公에서는 정유부문만의 편중적인 사업은 사양길임을 내다보고 石油化學 등 부가가치 높은 산업, 代替에너지(CWF등)의 개발 등에 일찌감치 역점을 두고 있는듯 하다.

그 넓어 보이던 울산灣이 좁아 보이리만큼 바다의 매립공사와 더불어 광활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석유화학 계열공장의, 團地 내에 18개의 화학공장이 이미 쪼고, 서 가고 있는 공장군을 바라보아도 쉽게 수궁이 갈만 하다.

이미 정유사업은 기술면에 있어서나 생산품의 품질면에서나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여 보다 향상을 바라볼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석유화학부문은 무한한 가능성과 새로운 소재개발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油公에서는 종합에너지 및 종합화학산업 개발·발전에 앞장서 나가기 위해, 일찍부터 他社가 추종하기 어려울 만큼의 연구개발에 열의를 쏟고 있다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蔚山정유공장옆에 자리하고 있는 기술지원 연구소가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박사를 포함한 80명에 이르는

연구원이 첨단기술의 촉매개발, 공정개선 신제품 개발 등 연구와 함께, 화학신소재의 다양화, 공정의 단축화 및 자동화 등 생산부문의 기술혁신을 위해 주야로 몰두해 있다는 것이다.

이 「油公 울산연구소」를 대충 둘러보고, 종업원을 위한 후생, 편의시설, 식당, 오락실을 일순, 점심을 나누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공장장 尹大郁전무를 찾아간다.

『맛을 찾아 별미여행을 하고 다니는 나의 기준으로도 일반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식단이 대단하군요. 종업원을 인간적으로 예우해 주고 있는 油公같은 회사에서는 요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사간의 마찰이나 분규도 없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노사가 한가족이 다라는 가족적 분위기와 상호간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할 문제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묻고 싶는데, 우리나라의 석유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 것이나 아납니까?』

『아마 그것은 일반소비자들의 선입견적인 편견일 것 같습니다. 물론 휘발유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 다소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현행 휘발유 가격을 100이라 기준하면, 台湾은 87, 西獨은 94여서 우리 보다 싸지만, 프랑스는 136, 日本은 140이어서 우리보다 훨씬 비쌉니다. 더구나 서민층과 산업체에서 많이 쓰는 燈油나 B-C 油와 같은 종류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싸다고 할 수 있지요. 등유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준을 100으로 칠 때, 台湾이 139, 日本이 221, 西獨이 227, 프랑스가 235나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석유가 싼편이지요.』

油公의 서비스 스테이션



『하지만 油價의 인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전반적인 산업발전을 위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유가인하의 전망은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석유산업의 모든 시책은 정부의 주도하에 있고, 油價의 결정이나 인하의 폭은 정부가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요. 하지만 두차례에 걸친 유가 인하가 있지 않았습니까? 국제유가가 크게 내리지 않았는데도, 그동안 유가를 인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석유사업기금을 많이 비축해 둔 때문이지요. 油價가 오르든 내리든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아직 기름 한방울 만나오니까요.

옛날 戰時下의 日本에서는 기름 한방울은 피 한방울 이라고까지 했습니다만, 기름 한방울 생산되지 않는 우리로서는 기름을 아껴 써야만 한다는 것이 유가 인하 못지 않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소비자가 내는 석유제품의 세금이 과다한 것이나 아납니까?』

『그건 제가 설명할 처지에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그렇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여겨지는군요. 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100%, LPG에 8%가 부과되고, 유통단계에서 다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서 언뜻 과다하다는 선입견이 주어질듯 합니다. 석유제품에 대한 과세비율이 우리는 24.6%여서 台湾의 14%보다는 비싸지만, 日本의 44.5%에 비하면 아주 낮은 편이니까요. 헛헛...』

油公창설 이래 25년 오직 울산 정유공장에서만 몸담아 왔다는 유공의 산증인이라는 尹전무는 호인다운 부드러운 웃음을 너털거리는 것이었다.

『그럼 완전한 蔚山의 토박이가 된 셈이군요...』

『웬걸요... 하지만 이 고장사람들은 울산토박이로 보아 주지를 앓고, 외래인 취급을 하던데요. 핫핫핫...』

시간을 갖고 담소를 더 나누고 싶었으나, 다음 예정지인 麗水의 湖南精油의 탐방이 남아 있는 것이었다.

아쉽지만 일찍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다. □